

광주은행, 대표 문화예술사업 ‘광주화루’ 전시 개막

전국 최대 규모 한국화 공모전 명성 올해 8회째... 150명 지원 10명 수상
내달까지 본점 1층서 ‘10인의 작가展’
고병일 은행장 “지역민과 예술로 소통”

광주은행의 대표 문화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한국화 공모전인 ‘광주화루’ 전시가 막을 올렸다.

2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1일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임택 동구청장, 공모전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광주화루 공모전’ 시상식과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을 개최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전국의 한국화 작가를 대상으로 ‘광주화루’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는 본 공모전의 수상작가 10명의 작품 20점이 공개됐다.

광주화루 공모전은 지난해 10월 접수를 시작해 150여 명의 지원자 중 포트폴리오 심사, 출품작품 심사, 심층 면접 3단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0명의 작가가 선발됐다. 대상 수상자는 김정옥 작가, 최우수상은 박세진 작가, 우수상은 김홍성, 박형진, 전지홍 작가가 수상했다. 또한 입상 수상자는 기민정, 오세경, 최혜연, 함수지, 허용성 작가가 차지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1일 본점에서 ‘제8회 광주화루 공모전’ 시상식과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형진(우수상),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임택 동구청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정옥(대상), 전지홍(우수상), 박세진(최우수상), 함수지(입상), 최혜연(입상), 허용성(입상), 오세경(입상), 김홍성(우수상), 기민정(입상), 고병일 광주은행장.

수상자들에게는 상금과 함께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상금은 대상 3000만원(1명), 최우수상 2000만원(1명), 우수상 각 1000만원(3명), 입상 각 200만원(5명)이다.

‘광주화루 공모전’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지역과 나이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아 한국화 화단 등단을 위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부터, 입지를 다진 작가들의 실험적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돼 경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청년 작가들의 섬세한 작업과 독창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그들의 예술적 고민과 성찰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은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광주은행 본점 1층 광주은행 아트홀에서 열리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광주화루(光州畫廬)’란 이름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들이 서로 경쟁하며 실력을 키우던 ‘회루(繪廬)’에서 고안했다. 광주가 한국화의 전통과 맥을 지키는 ‘보루’가 돼 풍성한 문화적 유산을 일궈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지난 8년간 한국화 진흥을 위해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 예술 후원사업을 펼쳐왔다”며 “광주화루를 통해 지역민과 예술로 소통하고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며, 한국화의 가능성이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가치를 모색하며 광주은행의 ESG 경영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경총, ‘회원 기업 돕는 날’ 운영 호응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운영 중인 ‘회원 기업 돕는 날’이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회원 기업을 직접 찾아가 돕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지정 한 후 지난 3월 한달 간 시범 운영했다.

주요 내용은 △국·시비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ESG 경영 △기업 이미지와 홍보 마케팅 △소통과 갈등 요인 해소 △기타 행사 진행 요령 등으로, 회원 기업들이 가장 관심 있고 컨설팅을 원하는 것은 국·시비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이었다.

광주경총 회원 기업의 70%가 제조기업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 마케팅, 전시회 참가비용 지출을 최소화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회원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문제를 꼽았다.

회원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취업 기간 등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업 기간이 5년 이상(재고용 2년 미만)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매주 수요일 ‘회원 기업 돕는 날’을 꾸준히 추진해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현재 인구감소와 중소기업 인력부족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장기간 거주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인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 추천 품목으로 춘곤증 이겨내세요”

육각커피·쿨링 오일 등 선택

광주지역의 한낮 최고 기온이 2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춘곤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졸음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유용한 품목을 추천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졸음을 쫓을 수 있는 품목으로는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의 ‘육각커피’가 대표적이다.

지난 2021년 광주신세계에 입점한 후 고객들은 물론 임직원들에게도 커피 맛집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현지법인으로서 지역 브랜드를 더 많

은 고객들에게 알리고자 육각커피를 입점 시켰다.

이후 육각커피는 시그니처 메뉴인 코코넛 커피를 비롯해 고급 원두를 블렌딩해서 선보이는 드립커피 등이 인기를 얻으며 커피 맛집으로 거듭났다. 지난해 7월부터는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고구마 맛, 팥맛 호두과자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관 2층에서 만날 수 있는 아로마 케어 전문 브랜드 ‘아베다’에서 선보이는 쿨링 오일도 지친 일상에 활력을 되찾는 것을 도와준다. 아베다 쿨링 오일은 블루 캐모마일과 페퍼민트 성분으로 시원한 청량감을 선사한다. 춘곤증을 쫓는 것 이외에도

마사지를 하거나 긴장 완화나 근육 이완이 필요할 때 소량만으로도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학업이나 업무에 지친 학생과 직장인들이 춘곤증을 쫓기 위해 많이 찾는 제품이다.

본관 지하 1층에서 만날 수 있는 ‘비타민뱅크’가 활력 충전을 위해 추천하는 제품은 패밀리 ‘츄어블 비타민c’이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선도하는 전문브랜드비타민뱅크에서 선보이는 패밀리 츄어블비타민 c는 하루 한 알로 비타민 100mg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게 도와준다. 씹어 먹는 형태라 춘곤증이 찾아올 때 한 알씩 챙겨 먹을 수 있다.

나다운 기자



광주신세계, ‘봄이 제철’ 썩·도다리 선택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식품관에서는 제철을 맞은 썩과 도다리를 요리하기 간편하게 손질해서 판매한다.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듯이 봄을 상징하는 대표 수산물인 도다리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은 적은 건강식이다. 썩은 면역기능 향상과 혈액순환, 소염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다리썩은 봄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싱싱한 도다리와 향긋한 썩을 이용한 메뉴로 입맛을 돋우기 좋다. 도다리는 1팩에 1만8000원, 썩은 3950원에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품

금호타이어, ‘금호 BMW M 클래스’ 공식 후원

금호타이어가 지난달 29-30일간 인제군 인제스피디움에서 개막한 ‘금호BMW M 클래스’에 타이어를 독점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수십년간 축적해 온 모터스포츠 기술력을 바탕으로 BMW사의 고성능 차량이 참가하는 M 시리즈 원메이크 클래스의 공식타이어사로 참여, 첨단 고성능타이어 기술력을 증명했다. 특히 고속 주행과 극한의 트랙 조건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금호타이어의 고성능 타이어 기술력을 선보이고 BMW M 차량의 성능을 극대화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였다.

금호 BMW M 클래스는 BMW M시리즈 차종으로 진행되는 레이스로, 가장 빠른 랩타임을 겨루는 타임 트라이얼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BMW M 클래스에 출전하는 모든 차량에는 고속 주행 중에도 탁월한 접지

력과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발휘하는 금호타이어 초고성능 타이어 엑스타스포츠(ECSTA SPORT)를 장착한다. 후원 계약을 통해 올시즌까지 BMW M 클래스 대회용 타이어를 전량 유상 공급한다.

윤민석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국내외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의 공식 타이어로 활약하며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로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모터스포츠의 높은 기준에 맞는 타이어 기술을 개발하고, 더 많은 팬들에게 고성능 타이어의 우수성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이마트 광주점, 나들이철 ‘즉석먹거리’ 인기

나들이 음식으로 즉석먹거리를 준비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2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즉석먹거리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8% 신장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바비큐 구이류는 29.3%, 샌드위치·디저트 같은 간편식사

류는 25.0% 신장했다.

황금연휴가 시작된 3월초부터 한 낮기온이 오르면서 나들이 음식으로 간편조리식품을 구매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석먹거리는 1~2인용에 딱 맞는 양과 간단한 조리법으로 편의성뿐만 아니라 요리의 재미까지 줄 수 있는 새로운 식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고물가로 인해 의

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도 나들이 음식으로 간편조리식이 인기를 얻는 요인이다.

이에 이마트는 4일부터 10일까지 뉴순살 닭강정(원산지: 별도표기, 각) 구매 시 신세계 포인트 3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피코크 꼬마김밥 2종(햄157g/어묵조림232g, 제조사:일미농수산, 각)은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해 5584원(각) 판매한다.

나다운 기자